

조선·명·청 소설규제의 법률적 근거 고찰* — ‘明律’을 중심으로

이지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소설규제의 연원 挾書律
 - 1) 협서율의 계승
 - 2) 소설규제에 대한 법률 적용
3. 명률의 ‘造妖書妖言’과 ‘禁止師巫邪術’
 - 1) 명률의 소설규제 조항
 - 2)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
4. 청대 소설규제의 법제화
 - 1) 규제대상인 소설에 대한 다양한 용어 명시
 - 2) 소설규제 담당부서 명시
 - 3) 소설책 및 서판의 훼손 명시
 - 4) 규제시행 관련 애민원칙 문구 명시
 - 5) 당률과 명률의 계승 및 소설규제법의 제정
5. 나가는 말

【초록】

‘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妖書妖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 이 논문은 2019-2020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hanige@naver.com)

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¹⁾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고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祿書祿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祿書祿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穢’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실록, 법전, 소설규제, 조선, 명, 청

1. 들어가는 말

조선·명·청 이 세 왕조는 ‘유교의 國是’와 ‘명률의 공유’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교는 前漢에서 국가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봉건질서의 근간으로, 여러 왕조를 거치며 한자 문화권에서 더욱 강화되어왔다. 『명률』은 法(처벌)보다 禮(교화)를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관용이라는 유교이념을 현실의 법률조항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당률』을 기본으로 하여 완성된 『명률』이 『청률』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리고 유교주의 국가로서 조선은 백성을 통치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 대한 사대를 표방하였다. 조선의 ‘小中華’ 천명은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정치적 구호였다. 조선의 경우는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수정을 제외하고 『명률』을 형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았다.²⁾ 이처럼 조선·명·청 세 왕조는 유교적 통치이념과 『명률』이라는 법률체제로 작동한 전형적인 유교주의 봉건국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규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설규제에서 조선·명·청이 다른 양상을 보임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³⁾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명과 청은 비

1)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禁毀小說’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禁書小說’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용철, 「중국 금서소설의 정리와 연구현황」, 『중국소설연구회보』, 제25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6, p.22) 그러나 문법이나 어감에 있어 ‘금지곡’처럼 ‘금지소설’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문맥에 맞추어 ‘금지소설’ 내지는 ‘소설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성종 때 편찬된 기본법전인 『經國大典』 刑典·用律에서는 “用大明律(대명률을 적용한다)”라는 조문을 통해 조선시대 형법적용의 기준이 ‘명률’임을 밝히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조선시대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http://db.history.go.kr/law/>에서 재인용하였다. 본문에서 인용한 법전 중 별도의 재인용을 밝히지 않은 자료들은 모두 여기서 재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록 중국이라는 국가를 공유하지만 지배민족이 달랐으며, 조선은 이들과 민족과 국가가 모두 상이하다. 이러한 환경은 유교와 명률이라는 통치이념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문화와 정서를 야기하였고, 이는 다시 서로 다른 소설규제의 양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현상이 ‘그렇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2가지 추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교국가인 조선·명·청에서 소설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명률』의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음에도 문화와 정서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소설규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추론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전을 중심으로 하고 실록을 참고로 하는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법전과 실록은 자료로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선과 명·청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조선, 명, 청 각 개별 왕조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거나,⁴⁾ 혹은 비교연구라 하여도 유사한 상황이 기록된 사료의 소개와 같은 편면적인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 명, 청의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도로서 소설규제를 고찰할 것이며, 세 왕조의 공통 자료로 통치이념과 정치적 실천을 반영하고 있는 법전과 실록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 지배계급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 왔었는지를 고찰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3) 금지소설의 출현은 고립된 역사현상이 아니며 이를 통해 사상과 문화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 (김혜진, 『명청대 금서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
- 4) 조선·명·청의 소설금지를 다룬 국내의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담니여, 「원명청시기 금책소설·회곡연구」,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년. 민관동, 「중국금서소설의 목록분석과 국내수용」, 『중국소설논총』, 제56집, 2018. 최용철, 「중국 금서소설의 정리와 연구현황」, 『중국소설연구회보』, 제25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6. 최용철, 「명청시대의 금서소설과 문인의 이중적 소설관」, 『중국어문논총』, 제31집, 2006. 중국 대륙의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歐陽健, 『古代小說禁書漫畫』, 遼寧教育出版社, 1992. 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第1期, 2010. 孫文杰, 『清代圖書市場研究』, 武漢大學圖書館學博士學位論文, 2010. 王彬, 『禁書·文字獄』, 中國工人出版社, 1992.
- 5) 예를 들어 최용철의 「중국의 역대 금서소설 연구」는 『실록』의 기사를 인용하였으나 분석보다는 소개에 더 가깝다. 논문에서는 명 만력30년(1602) 소설문체로 상주문 작성을 금지할 것에 관한 예부의 건의와 조선 선조2년(1569) 전교에 『삼국연의』가 인용된 것과 관련한 선조와 기대승의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최용철, 「중국의 역대 금서소설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연구회, 1997, pp.202-203)

2. 소설규제의 연원 挾書律

1) 협서율의 계승

금서와 관련하여 중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전국시대 초기 상앙이 진효공에게 “『시경』과 『서경』을 태워 법령을 바르게 하십시오(燔詩書而明法令)”라고 가르쳤다는 기록이 『韓非子·和氏』 第十三篇에 보인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본격적인 도서규제 정책, 즉 금서의 시작은 이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더 뒤인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⁶⁾ 분서갱유는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인권침탈의 대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된 君主專制文化政策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협서율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행해진 합법적이고 적법한 통치행위였다. 법가를 통치사상으로 내세웠던 진시황은 분서갱유 시행에 앞서 협서율이라는 법적 근거를 준비하였다. 기원전 213년 유생들이 秦의 郡縣制를 반대하고 周의 封建制 부활을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진의 승상이었던 이사는 유생들의 집단행동에 대응, 법가이외의 학문으로 정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시황의 재가를 얻어 협서율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협서율은 금서 시행의 근거가 된 중국 최초의 법령이 되었다. 금서와 관련된 협서율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우선 조선과 명·청의 소설규제에 관한 법령의 연원인 당률과 협서율의 계승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非博士官所職，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悉詣守尉雜燒之。有敢偶語詩書者，棄市。以古非今者，族。吏見知不舉者與同罪。令下三十日不燒，黔爲城旦。所不去者：醫藥，卜筮，種樹之書。(박사가 아니면 『시경』과 『서경』 그리고 百家의 책들 소장한 자는 모두 守나 尉에게 제출하여 소각시켜라. 감히 『시경』과 『서경』을 논한 자는 시체를 버리는 형에 처하라. 옛 것으로 지금을 비방한 자는 멸족(族刑)에 처하라. 관리가 보고서도 고하지 않으면 같은 죄이다. 영이 내린지 30일이 되어도 소각하지 않으면 묵형과 노비형에 처하라. 의약, 점술, 나무 심기와 같은 책은 예외이다) 挾書律: 『史記·秦始皇本紀』.

② 諸造妖書及妖言者，絞… 卽私有妖書，雖不行用，徒二年，言理無害者，杖六十。(모든 요언오서를 만드는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개인적으로 요서를 갖고 있으면, 비록 말을 옮기거나 책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징역 2년이고,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곤장 60대에 처한다) 『唐律』 卷18 賊盜 286條.

6) 강태권, 「중국 금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7호, 중국어문학연구회, 1995, pp.1-3.

협서율의 ‘挾書’는 ‘책을 옆구리에 끼우고 점유하다’, ‘책을 소장하고 은닉하다’라는 뜻이다. ①의 ‘藏’은 ‘挾(은닉하다)’을, ②의 ‘私有’는 ‘私藏(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은닉하다)’을 의미한다. ①과 ②의 밑줄 친 “敢有藏詩書, 百家語者”와 “私有妖書”를 통해 협서율과 『당률』 ‘조요서요언’ 조항의 계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藏’의 처리와 관련된 조건인 ①의 “有敢偶語詩書者”, “令下三十日不燒”와 ②의 “雖不行用”, “言理無害者”를 통해서도 그 계승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소설규제의 연원인 협서율을 계승한 『당률』의 ‘조요서요언’ 조항은 단 한 글자의 변형도 없이 『宋刑統』 ‘조요서요언’ 조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다시 『명률』과 『청률』이 계승 발전시켰다.⁷⁾

2) 소설규제에 대한 법률 적용

중국에서 최초로 소설이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언제일까?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소설을 금지한 것은 명대부터이다. 중국의 고전소설은 魏晉의 지인·지괴소설을 거쳐 唐의 전기소설로, 그리고 宋·元의 화본소설에 이르기까지 왕조와 장르를 달리했지만, 계승발전을 통해 점차 독자층을 확보했으며, 그에 비례해서 사회중하층의 세속인심에 대한 영향력 또한 커졌다.⁸⁾ 이렇듯 소설의 영향력 확산에도 불구하고 명대 이전의 역대 정권에서는 통속문학인 소설에 대한 폄하로 소설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 및 풍속에 대한 폐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소설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대부터 집권층은 소설의 성장과 그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명 6대 황제인 영종 때 國子監의 祭酒인 李時勉은 중국사상 최초로 소설 금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예비관료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담당자였던 그는 『전등신화(剪燈新話之類)』를 발견 즉시 소각하여야 하여야 한다며 주청을 올렸으며 영종은 이를 윤허하였다.⁹⁾ 이로부터 중국에서

7) 예를 들어 『청실록』의 “至稗官小說. 編造本自無稽. 因其詞多俚鄙. 市井粗解識字之徒. 手挾一冊. 薰染既久. 門很淫邪之習. 皆出於此(패관소설이란 본시 의거가 없이 꾸며진 것이다. 그 연사가 천박해 저자에서 엉터리로 글자를 익힌 무리들이 책 한 권 손에 끼고 오랫동안 그 것에 몰드니, 난폭하고 외설스런 풍속은 전부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는 기록에서 “手挾一冊”라는 구문은 전후맥락과 표현방식에서 挾書(律)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를 통해 진대의 협서율은 면면히 이어져 소설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청대 통치계급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해 본다. (『英宗睿皇帝實錄』 卷之二百七十六 嘉慶18년 10월 13일 6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http://db.history.go.kr/>에서 재인용. 본문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 『명실록』, 『청실록』 중 별도의 재인용을 밝히지 않은 자료들은 모두 여기서 재인용하였다)

8) 崔蘊華, 『從清代禁毀小說看法對文學的規制』, 中國政法大學法學理論碩士學位論文, 2013, p.2.

9) 『英宗睿皇帝實錄』 卷九十 正統七年 三月 十日 3번째 기사에 의하면 분서의 대상으로 “如剪燈新

‘금지소설’, 즉 소설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는 약 200년 후인 명 말 승정 15년(1642)에 역모를 가르친다는 ‘誨盜’를 빌미로 『수호전』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수호전』은 금지소설이 된 이후에도 ‘규제에 대한 저항(上有政策下有對策)’이라고 여길 정도로 제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유행했었다.¹⁰⁾ 이 두 건이 명대의 대표적인 소설규제 사안이다.¹¹⁾ 이로 미루어보아 명대의 소설 규제는 간헐적 사건일 뿐, 엄격히 시행되는 문화정책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명률』에 소설규제를 특정한 전문 법조항이 없는 이유이며, 명대가 소설규제에 『明律』 刑律·賊盜 279條인 ‘造妖書妖言’와 禮律·祭祀 181조 ‘禁止師巫邪術’이라는 유관조항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소설규제에 대한 명대의 이러한 기류는 청대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중국문학사상 본격적인 의미의 소설규제는 청대에서 시작되었다.¹²⁾ 명대와 달리 청대에는 소설규제가 왕조 내내 수시로 진행되어 ‘일상화’라 불릴 정도였다.¹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대 소설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제화’이다. 『명률』을 근간으로 하는 『청률』은 『명률』처럼 처음에는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같은 유관 조항만 있을 뿐, 소설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었다.¹⁴⁾ 그러나 강희 22년(1683) 대만을 정복하며 정국이 안정되자 청 정부는 사상통제에 박차를 가하였다. 강희 53년(1714)에는 예부에 유지를 내려 소설을 ‘淫詞’로 규정하고, 음사소설의 간행, 매매, 독서 및 관리들의 감독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였다.¹⁵⁾ 그리고 이 유지는 ‘定例’가 되었고, 그 뒤 『청률』 刑律·盜賊 256條의 조례로 삼입되어 명실상부한 소설규제법이 탄생하

話之類(전등신화 같은 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黃氏集義精舍에서 『전등신화』와 『전등여화』를 합간 하였고 때문이었다. 한편 명과 청의 실록에는 『전등여화』에 대한 기록이 없고 조선왕조실록에만 2회 언급되었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壬戌 4번째 기사. 같은 날 7번째 기사에는 『餘話』로 기록)

10) 명대 승정제 이후 금지소설이었던 『水滸傳』은 약 27가지의 異名小說이 있다. 異名小說은 출판업자의 상술이기도 하지만 금지소설 지정에 맞선 가장 효율적인 저항방식이었다. (최용철, 「중국의 역대 금서소설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연구회, 1997, p.217)

11) 명대에는 2차례의 금서가 있었지만 소설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歐陽健, 『古代小說禁書漫畫』, 遼寧教育出版社, 1992, pp.7-14). 『전등신화』와 『전등여화』 및 『수호전』 이외에 이탁오의 『산중일석화』도 명대의 금지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민관동, 「중국금서소설의 목록분석과 국내수용」, 『중국소설논총』, 제56집, 2018, pp.284-292)

12) 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 2010, p.65.

13) 전국적 규모의 소설금령 분류에 대한 학계의 대표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天聰9년(1635)을 기점으로 해서 光緒27년(1901)까지 23회로 분류(孫文杰, 『清代圖書市場研究』, 武漢大學圖書館學博士學位論文, 2010, pp.208-212). ② 順治9년(1652)에서 光緒11년(1885)까지 17회로 분류(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 2010, pp.66-67)

14) 일례로 정초에는 『續金瓶梅』를 처벌 할 구체적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가가 사면됐었다. (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 2010, pp.66-67)

15) 『聖祖仁皇帝實錄』 卷之二百五十八 康熙五十三年 四月 四日 1번째 기사.

였다. 이로써 청대는 명조와는 달리 소설을 규제함에 있어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법 조항의 적용이라는 특징을 띠게 되었다.

조선은 주지하다시피 ‘소증화’를 표방하며 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명을 정통으로 삼는 기조를 이어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의 年號는 사용하면서도 『청률』을 따르지 않고 『명률』을 견지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수정을 제외하고 왕조 내내 『명률』을 형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소설규제에도 『명률』을 적용,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같은 유관 조항만 있을 뿐, 『청률』과 같은 구체적인 소설규제법이 없었다.

3. 명률의 ‘造妖書妖言’과 ‘禁止師巫邪術’

1) 명률의 소설규제 조항

『명률』은 명대의 법령조례로서 명 태조 주원장이 吳王이던 시절인 1367년에 편찬을 시작하였다. 전후 총 4차에 걸친 편찬과정을 거쳐 1397년 『명률』이 완성되었다.¹⁶⁾ 명 태조는 ‘『명률』의 개정을 금지(嚴禁嗣君變亂成法)’하였고, 이 유훈은 명이 망할 때까지 지켜졌다.

『명률』은 『당률』을 기반으로 하며, ‘禮’를 중시하는 역대 법률제정의 전통인 ‘유교 이념의 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혁신적인 법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명률』의 전통은 유교를 국시로 숭상하는 청과 이웃국가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만주족 정권이지만 『명률』이 『청률』의 근간을 이루었고, 조선은 『명률』을 형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명률』이 청과 조선의 형법에 직접적이고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명·청의 소설규제와 관련하여 그 영향 역시 지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법조항을 고찰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명대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등신화』를 금지소설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명말 민중봉기를 경계하며 『수호전』을 규제하였다.¹⁷⁾ 이 둘의 규제사유와 처리방식에 대한

16) 홍무7년, 22년, 30년, 3차례의 대규모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 후 詔令혹은 條例의 제정으로 律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明末까지 개정 없이 원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에 따라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마침내 『대명률부례』를 통해 『대명률』의 율문에 후대의 사례 등을 추가한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게 되었다.

17) 『명실록』에는 ‘剪燈新話之類’로 기록되었고 『전등여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전란으로 인해 ‘思宗崇禎朝’, ‘安宗弘光朝’, ‘紹宗隆武朝’, ‘昭宗永曆朝’의 경우는 실록이 없다. 따라서 숭정 때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如剪燈新話之類, 不惟市井輕浮之徒爭相誦習, 至於經生儒士多舍正學不講日夜記意, 以資談論. 若不嚴禁, 恐邪說異端日新月盛, 惑亂人心實非細故. … 凡遇此等書籍即令焚毀. 有印賣及藏習者問罪如律, 庶俾人知正道不為邪妄所惑. (『전등신화』와 같은 류가 그러한 데, 시정의 경박한 무리가 다투어 읽어 익힐 뿐 아니라 많은 수의 경전을 배우는 유생들이 올바른 공부를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익혀 답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엄히 금하지 않으면 사설이단이 날로 늘어나 인심으로 어지럽힐 것입니다.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 무릇 이러한 책들을 보면 즉시 소각하고, 간행하고 판매하거나 숨겨서 읽는 자가 있으면 律과 같이 처벌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정도를 알게 하여 사특하고 망령됨에 혹한 바 되지 않게 하십시오.) 『英宗睿皇帝實錄』 卷九十 正統七年(1442) 三月十日 3번째 기사.

② 降丁各归里甲, 勿令仍有占聚, 着地方官设法清察本内, 嚴禁『(水)滸傳』, 勒石清地, 俱如議飭行, 欽此. … 煩爲遵炤本部覆奉明旨内事理, 希大張榜示, 凡坊間家藏『(水)滸傳』并原板盡令速行燒毀不許隱匿, 施行. 崇禎十五年六月二十三日郎中龔彝. (항복한 자들은 각기 이갑에 귀속시켜, 예전처럼 모여 있지 못하게 하라. 지방관들은 방법을 강구하여 자세히 살펴 『水滸傳』을 엄금하라. 돌에 새긴 것처럼 명심하고, 모두 의론하여 시행하라. 어명이니 이를 준수하라. … 번거롭겠지만 본부에서 유지를 맡든 바의 사리에 따라, 방을 크게 내걸어 알리기를 희망한다, 무릇 민간에 숨겨놓은 『水滸傳』과 서판을 조속히 불태워라, 은닉을 불허한다. 시행하라. 순정 15년 6월 23일 낭중 공이)18).

위 인용문의 밑줄 친 “問罪如律”과 “俱如議飭行”처럼 『명실록』과 그 외의 사료에 서는 명확히 근거법령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명률』 279조 ‘조요서요언’과 181조 ‘금지사무사술’의 두 조항이 규제의 법적근거로 여겨진다. 또한 『명률』은 『당률』을 근간으로 해서 제정되었으므로 이 두 조항 역시 『당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

일반적으로 『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唐律疏議』를 지칭한다.19) 『당률소의』는 당

『수호전』의 규제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없다. 이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이청산에 관한 한 줄짜리 기록이며, 이마저 ‘부록’이라는 형식에 실린 것이다. 따라서 『명실록』에 명시된 유일한 금지소설은 『전등신화』뿐이다.

18) 東北圖書館編, 『明清內閣大庫史料』上册, 東北圖書館, p.429(陳衛星, 「明清时期『水滸傳』禁毀情况考論」, 『第四屆中國古籍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 pp.14-15에서 재인용)

19) 『명률』이 『당률』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되었으므로, 조선에서는 『명률』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당률소의』를 참고하였다. 세종12년(1430) 이후 율학의 取才(특별채용)에 『당률소의』가 시험과목

고종의 칙명으로 장손무기, 이적 등이 당나라 형법에 주석을 붙인 것이다.²⁰⁾ 〈名例〉이하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교이념에 따른 ‘봉건종법제도의 수호’와 ‘황권 강화’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유교질서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당률소』는 그 부록인 『당률석문』²¹⁾에, “怪異不常之書, 謂之妖書. 欺罔姦邪之言, 謂之妖言(괴이하고 이상한 책을 요서라 한다. 속이고 간사한 말을 요언이라 한다)”²²⁾라며 ‘요언’과 ‘요서’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 할 때, 『명률』 ‘조요서요언’ 조항의 직접적인 연원이며, ‘금지사무사술’ 조항의 연원이기도한 『당률』의 조항은 ‘조요서요언’이다.

(1) ‘조요서요언’의 영향관계

① 諸造妖書及妖言者, 絞. 疏議曰, 造妖書及妖言者, 謂構成怪力之書, 詐爲鬼神之語... 傳用以惑衆者, 亦如之. 其不滿衆者, 流三千里, 言理無害者, 杖一百. 卽私有妖書, 雖不行用, 徒二年, 言理無害者, 杖六十. (모든 요언요서를 만드는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소의에서 말하길, 요서요언을 만드는 자는 괴력난신을 꾸미고 귀신의 말로 속이는 것을 일컫는다... 요언요서를 이용해서 민중을 홀리면 요언요서를 만드는 것과 같다. 3인 이상을 홀리지 않았으면 유배 3천리, 요서와 요언의 피해가 없으면 곤장 100대. 개인적으로 요서를 갖고 있으면, 비록 말을 옮기거나 책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징역 2년이고,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곤장 60대에 처한다) 『唐律』 卷18 賊盜 286條.

② 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 皆斬. 若私有妖書, 隱藏不送官者 杖一百徒三年. (참위와 요서요언을 만들거나 이를 이용 민중을 홀린 자는 모두 참한다. 만약 개인적으로 요서를 사용치는 않았으나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고 관청에 보내지 않는 자는 곤장 100대, 징역3년에 처함) 『大明律』 刑律·賊盜 279條.

①과 ②는 같은 조목의 『당률』과 『명률』이다. 전반적으로 내용상 같은 맥락이라 그 계승관계가 명확하다. 이 둘의 차이는 『명률』의 처형방식이 “絞”에서 “斬”으로 바뀌었고, 형량이 ‘杖一百徒三年’으로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妖書·妖言에 ‘讖緯’가 첨가

으로 편성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참조)

20) 고종2년(651) 『당률』의 주요내용과 풍격을 확립한 『貞觀律』를 기본으로 수정을 시작했고, 다음해 『永徽律』에 자구해석을 가하여 고종4년 10월 비준을 거쳐 반포하였다. 『永徽律疏』라고 명명했으나, 疏文이 모두 “議曰”로 시작하므로, 『唐律疏議』라고도 불렀다. 이밖에도 『律疏』 혹은 『당률』이라고도 불리었다.

21) 宋의 此山黃冶子가 『宋刑統』를 학습하기 위해 『宋刑統釋文』을 편찬하였고, 훗날, 元의 王元亮이 重編하여 『당률소』의 부록으로 삽입하였다. (岳純之, 「論『唐律釋文』及其文獻價值」, 『蘭州學刊』, 南開大學法學院, 2014, p.1)

22) 『唐律釋文』 卷第十八 賊盜二.

되어 그 범위가 더 명확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隱藏不送官”이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었다. “隱藏不送官”은 요서 처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매우 강화된 소설규제로 『청률』에 계승되었다. 그리고 “隱藏不送官”은 조선의 『중종실록』에서 언급된 ‘妖書隱藏之律’²³⁾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청률』의 계승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③ 凡造讖緯妖書妖言, 及傳用惑衆者, 皆斬監候. 被惑人不坐. 不及衆者, 流行三千里, 合依量情分生. 若(他人造傳)私有妖書, 隱藏不送官, 杖一百, 徒三年. (대저 요서와 요언을 꾸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는 모두 참하나 추심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미혹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3인)에게 미치지 않은 경우, 삼천리 유배에 처하고, 정도에 따라 처분한다. 만약(타인이 만든) 요사스런 책을 갖고 있으며, 사용치는 않았으나 감추고 관아에 바치지 않은 자, 곤장 100대 및 징역 3년에 처한다) 『大清律』刑律·盜賊 256條.

②와 ③은 같은 조목의 『명률』과 『청률』이다. ③이 “隱藏不送官”이라는 요서의 구체적 처리방식을 문자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조목을 공유하고 있어 내용은 ①, ②와 전반적으로 같다. 다만 형의 집행에 있어 ③은 ‘監候(추심으로 집행유예)’의 첨가로 ②보다 신중해졌으며, 집행대상에 있어서도 ‘被惑人不坐’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不及衆者, 流行三千里(3인에게 미치지 않은 경우, 삼천리 유배)’라는 ①에는 있었으나 ②에는 없던 내용을 명시하여 ‘형량의 수위를 죄질에 따라 조절하고 있다(合依量情分生)’. 이를 통해 소설규제의 ‘집행’과 ‘대상’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 『청률』이 『명률』에 비해 다소 관대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隱藏不送官”과 조선의 『중종실록』에서 언급된 ‘妖書隱藏之律’과의 관계이다.

④ 命燒『薛公瓚傳』, 其隱匿不出者, 依妖書隱藏之律, 治罪. (『설공찬전』을 소각하고, 숨기고 내어 놓지 않는 자는, 요서은장률로 치죄하라 명하셨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9월 5일 임자 7번째 기사.

『명률』에는 ‘妖書隱藏’이라 명시된 律이 없다. 조선은 『명률』을 형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명률』에 명시되지 않은 ‘妖書隱藏之律’은 중종 당시 조선의 법전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약 270여 년 후 정조의 명으로 私撰된 『典律通補(1786)

23) “妖書隱藏之律”이라는 용어는 『명실록』과 『청실록』에는 없고, 『조선왕조실록』의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5일 임자 7번째 기사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²⁴⁾ 刑典·禁制의 ‘造讖緯妖書’ 항목에는 출처를 ‘律’²⁵⁾로 밝히며, “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 皆斬. 隱藏妖書, 不送官, 杖百·徒三(참위와 요서요언을 만들거나 이를 이용 민중을 홀린 자는 모두 참한다. 요서를 숨기고 관청에 보내지 않으면 곤장 100대, 징역3년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는 종종 때부터 『명률』의 ‘若私有妖書, 隱藏不送官者(만약 요서를 은닉하고 관에 보내지 않는자)’를 ‘妖書隱藏之律’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隱藏不送官”은 조선의 중종실록에서 언급된 ‘妖書隱藏之律’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조선을 관통하고 대한제국으로까지 이어졌다. ②의 “隱藏不送官”은 “讖緯나 妖書를 造호거나 傳播호야 衆을 惑케 호는 者는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호는 者는 絞에 處호디, 隱藏호고 送官치 아니호는 者는 懲役 三年에 處호미라.”²⁶⁾는 조항으로 조선을 잇는 대한제국의 형법전인 『형법대전』으로도 계승되었다.

(2) ‘禁止師巫邪術’의 영향관계

⑤凡師巫假降邪神, 書符咒水, 扶鸞禱聖, 自號端公太保二者, 男巫僞號. 師婆女巫僞號. 及妄稱彌勒佛白蓮社明尊教白雲宗等會, 一應左道亂正之術, 或隱藏圖像, 燒香集衆, 夜聚曉散, 伴修善事, 扇惑人民, 爲首者, 絞秋. 爲從者, 引例各杖一百流三千里. 若軍民裝扮神像, 鳴鑼擊鼓, 迎神賽會者, 杖一百, 罪坐爲首之人. 里長摠承上兩節. 知而不首者, 各笞四十. 其民間春秋義社, 不在禁限. (무릇 무당이 거짓으로 邪神이 내렸다며 부적을 쓰는 등의 의식을 행하며, 스스로를 남자무당은 도사(단공, 태보)나 여자무당은 무녀(사파)라 부르거나, 망령되이 서방의 미륵불, 백련교의 원공, 명교의 마니, 백운종의 부처라 칭하는 무리들은 모두 좌도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사술이다. 혹은 이런 그림을 숨겨놓고 향을 피워 사람들을 모으고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고, 거짓으로 착한 일을 닦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우두머리는 교수형을 가을까지 집행유예, 신도는 예에 따라 곤장 백대, 삼천리 유배이다. 군민이 신상을 장식하며, 정을 울리고 북을 치며 신을 맞이하는 의식을 하면, 곤장 백대이고, 우두머리는 죄로 처벌하겠다. 이 장이 이 모두를 알면서 고하지 않으면 태형 사십대이다. 민간에서 행하는 봄, 가을의 사당제사(봄 여름제사는 祈, 가을 겨울제사 報를 행하는 것)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大明律』禮律·祭祀 181條.

24) 『典律通補』 凡例 : 此書, 以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明律, 爲主, 通編增條, 盡錄之(이 책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명률』을 위주로 하여 『대전통편』의 늘어난 조항을 다 기록하였다) 정조의 비준을 거쳤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출간되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법전으로서 시행되지 못했다.

25) 『典律通補』 凡例 : 曰律者, 大明律也, 而出於講解附例者, 竝稱律 (『대명률』, 『대명률강해』, 『대명률부례』를 律이라 병칭한다)

26) 『刑法大全』 第4編 律例上 第4章 詐僞所干律 第12節 邪術律 第404條.

⑥凡師巫，假降邪神，書符、咒水、扶鸞、禱聖，自號端公、太保、師婆（名色）及妄稱弥勒佛、白蓮社、明尊教、白云宗等會，一應左道異端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煽惑人民，爲首者，絞（監候）爲徒者各杖打一百、流三千里。若軍民裝扮神像，鳴鑼擊鼓迎神賽會者，杖一百、罪坐爲首之人。里長知而不首者，各笞四十。其民間春秋義社（以行祈報者）不在禁限。²⁷⁾ 『大清律』禮律·祭祀 162條。

⑤와 ⑥은 ‘금지사무사술’이라는 조목의 『명률』과 『청률』이다. 조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지사무사술’의 내용은 ‘요서’ 및 ‘요언’과 관련이 있다. 같은 ‘조요서요언’이라는 조목이지만, ①과 달리, ②와 ③에는 ‘讖緯’가 첨입되어 ‘妖’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당률』에 없는 ‘금지사무사술’ 조항이 『명률』과 『청률』에 명시되어있다. ‘妖’와 ‘邪’의 구체화를 통해 유교질서에 위배되는 이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과 청은 소설규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명대와 달리 청대는 ①에 비해 ‘妖’와 ‘邪’의 첨가로 구체적이면서도 범위가 넓어진 천라지망의 범조항에 ‘淫’을 결합하여 빈번히 전개된 소설규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한편 명은 ‘淫’에 주목하여 소설을 규제하지 않았으며, 조선은 ‘穢’에 주목하였었다.

다음은 ‘금지사무사술’과 조선의 『중종실록』에서 언급된 ‘左道亂正扇惑人民律’ 혹은 ‘左道亂正律’과의 관계이다.

⑦ 命罷仁川君蔡壽職，以其撰『薛公瓚傳』，造怪誕之說，形諸文字，使人信惑。依左道亂正扇惑人民律，憲府照以當絞，只命罷職（인천군 채수를 파직하라 명했다. 그가 지은 『설공찬전』은 괴이한 말을 꾸며서 문자로 나타낸 것으로 사람들이 믿어 미혹하게 한다. ‘좌도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하여 미혹케 한 律’에 의거 사헌부가 교수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파직만을 명한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9월 18일 을축 2번째 기사.

조선은 『명률』을 형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명률』에 명시되지 않은 ‘左道亂正扇惑人民律’ 혹은 ‘左道亂正律’이라는 조항은 조선의 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명률』에 비록 ‘左道亂正(扇惑人民)律’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률』 181조 ‘금지사무사술(⑤번)’의 “一應左道亂正之術(모든 좌도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사술)”의 문구와 『大明律附例』 卷之十一 祭祀 ‘금지사무사술’의 첫 번째 조례 중 “一切左道亂正邪術扇惑人民依本律(모든 좌도와 사술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하여 미

27) ⑥에 없는 ⑤의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상 대부분 일치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⑥의 번역은 ⑤의 번역으로 대신한다.

혹케 하는 것은 이 律에 의거해서)”라는 문구를 통해 이 둘의 상호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

일례로 ‘좌도난정률’과 관련하여 『명실록』에는 “刑部鞫問李氏左道亂正律當絞(형부에서 이씨를 좌도난정률로 국문하여 교수형에 처하다)”²⁸⁾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被告崔時亨, 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 處絞(피고 최시형을 대명률 제사편 금지사무사술조에 의거… 교수형에 처함)”²⁹⁾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소설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사술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좌도난정률”과 ‘금지사무사술’ 조항의 연관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대한제국의 형법전인 『刑法大全』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⑤의 “左道亂正之術”은 아래와 같이 2개의 조항으로 분산되어 계승되었다.³⁰⁾

a. “邪神을 假降호거나 書符呪水호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호거나 財物을 騙取호者는,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并히 懲役 終身에 處함이라.”

b. “圖像을 隱藏호야 香을 燒호며 衆을 集호야 夜聚曉散호며 善事를 佯修호야 人民을 煽惑호는 者는 懲役 終身에 處함이라.”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본 소설규제와 관련된 ‘左道亂正(煽惑人民)律’의 기록이다.

a. “命罷仁川君蔡壽職, 以其撰『薛公瓚傳』, 造怪誕之說, 形諸文字, 使人信惑. 依左道亂正煽惑人民律, 憲府照以當絞, 只命罷職.(인천군 채수를 파직하라 명했다. 그가 지은 『설공찬전』은 괴이한 말을 꾸며서 문자로 나타낸 것으로 사람들이 믿어 미혹하게 한다. ‘좌도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하여 미혹케 한 律’에 의거 사헌부가 교수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파직만을 명한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18일 乙丑 2번째 기사.

b. “左道亂正之律, 執法之吏, 則固當斷之如此矣(좌도란정률, 법을 집행하는 관리라면 실로 이처럼 단죄함이 마땅합니다)” 『중종실록』 14권, 중종6년 9월 20일 정묘 1번째 기사.

사헌부가 『설공찬전』의 작가인 채수를 ‘심히 요망한 인과윤회의 이야기’를 지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으니, ‘좌도난정률’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청하였

28) 『孝宗敬皇帝實錄』 卷五十三 弘治四年 七月 二十八日 3번째 기사.

29) 『고종실록』 37권, 고종35년 7월 18일 陽曆 2번째 기사.

30) 『刑法大全』 第4編 律例上 第4章 詐僞所干律 第12節 邪術律 第405條 [書符呪水]. 第406條 [圖像隱藏].

지만, 증중은 너무 과하다며 과직만을 명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명률』 181조 ‘금지사무사술(⑤의 “左道亂正之術”)’ 조항이 조선의 사헌부가 유교질서에 어긋나는 ‘윤회화복’을 이야기한 소설의 작가에게 적용한 ‘左道亂正扇惑人民律’과 ‘左道亂正律’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³¹⁾ 이처럼 조선시대를 통틀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금지소설’ 『설공찬전』의 규제에 적용된 법률은 ‘妖書隱藏之律’과 ‘左道亂正(扇惑人民)律’이며, 이는 『당률』 286조 ‘조요서요언’에 연원을 둔 『명률』 279조 ‘조요서요언’과 181조 ‘금지사무사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과 조선의 『실록』에 명시된 금지소설은 각 1권씩에 불과하다. 조선과 명은 각 1권씩에 불과한 이 소설들을 금지소설로 지정함에 있어 유교의 통치원리에 입각하여 대의명분을 세웠다. 즉 집권층의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결정이 아닌, 『당률』 ‘조요서요언’을 근거로 하는 『명률』 279조 ‘조요서요언’과 181조 ‘금지사무사술’에 입각하여 금지소설을 지정하였던 것이다.

4. 청대 소설규제의 법제화

淸律은 1840년 이전 청대 법률의 총칭으로, 『大清律集解附例』와 『大清律例』를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이다.³²⁾ 『大清律例』는 봉건 중국 최후의 법전이며, 기본적으로 『명률』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 청대는 세조대부터 법률제정에 착수하여 순치3년(1646)에 최초의 성문법전 『대청률집해부례』를 반포, 『대청률례』 제정의 기초를 닦았다. 그 뒤 강희 18년(1679)에 첨삭을 가해 이듬해에 『刑部現行則例』를 반포했고, 28년 이를 正律에 삽입하였다. 옹정시기에는 청대의 법률이 정형화되기 시작하여 옹정3년(1725)에 『대청률집해』를 완성하였고, 건륭5년(1740) 『대청률례』 혹은 『대청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건륭11년에 ‘조례는 5년에 작게 10년에 크게 수정’한다고 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로 附律과 條例를 첨삭하였고, 律文은 거의 수정하지 않았지만, 건륭33년(1768)에는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였다.³³⁾ 그리고 선통2년(1910) 『大清現行刑律』의 반포로 『대청률례』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31) 『청실록』에는 『명실록』과 달리 ‘左道亂正’ 내지는 ‘左道亂正律’이라는 기록은 없고, ‘左道亂眾之徒’라는 표현만 1회 사용됨(『宣宗成皇帝實錄』 卷之四百四十一 道光二十七年 四月 二十一日 1번째 기사. 『大清律』禮律·祭祀 162條에도 ‘左道異端之術’이라고 『명률』과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하나 『청실록』과 『청률』이 더 구체적이다.

32) “律例”는 형법의 正式條文과 이를 보충해주는 條例와 例案이다. ‘例’는 ‘律’의 보충으로, 실제 법 적용에서는 『清史稿·刑法志一』의 “律既多成空文,而例愈滋繁碎(률은 많아야 공허하고, 례는 늘어나 번잡하고 자질구레하게 됐네)”라는 말처럼 ‘例’가 더 많이 사용된다.

33) 孫家紅, 「大清律例百年研究綜述」, 『法律文獻信息與研究』, 政法大學圖書館, 2008, pp.1-3.

이처럼 『청률』은 청대의 홍망성쇠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초부터 이어진 소설규제가 『청률』을 근거로 시행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청률』과 각종 ‘법전’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청대 소설규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각종 법전에 기재된 중앙정부의 주요법령들을 아래의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법전에 기재된 중앙정부의 주요법령³⁴⁾

번호	내용 및 출전
1	坊間書賈, 止許刊行理學政治有益文業諸書. 其他瑣語淫詞, 及一切濫刻窗藝社稿通行嚴禁. 違者从重究治 ³⁵⁾ (順治九年(1652). (清)魏晉錫纂修『學政全書』 ³⁶⁾ 卷七『書坊禁例』) 시정의 서점에서는 이학 및 정치에 유익한 책의 간행만을 허가한다. 기타 조잡하고 음란한 내용과 일체의 마구잡이로 간행한 습작시문의 유통을 엄금한다. 위반하는 자는 엄히 다스린다.
2	嗣後如私刻瑣語淫詞, 有乖風化者, 內而科道, 外而督撫, 訪實何書系何人編造, 指名題參, 交與該部議罪 ³⁷⁾ (康熙二年(1663). (清)魏晉錫纂修『學政全書』卷七『書坊禁例』) 향후 사적으로 음란하고 조잡한 글을 간행, 풍속을 해친 자를 도성에서는 양아문, 지방에서는 총독 및 순무한테 넘겨 누가 어떤 책을 간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처벌을 위해 해당 부서들은 죄를 심의하라.
3	書肆淫詞小說, 刊刻出賣共一百五十餘種, 其中有假僧道爲名, 或刻語錄方書, 或稱祖師降占, 此等邪教惑民, 固應嚴行禁止. 至私行撰著淫詞等書, 鄙俗淺陋, 易壞人心, 亦應一體查禁, 毀其刻板. 如違禁不遵, 內而科道 ³⁸⁾ 五城御史, 外而督撫, 令府州縣官, 嚴行稽察題參, 該部从重治罪. 但除該管官員外, 亦不許旁人訐告, 以致奸徒擾害良民 ³⁹⁾ (康熙二十六年(1687). (清)魏晉錫纂修『學政全書』卷七『書坊禁例』) 책방의 음란소설은 간행되어 판매되는 것이 총 150여종이며, 그 중에는 가짜 종과 도사를 명목으로 하기도 하며, 어록을 새긴 방서, 혹은 조사가 내린 점괘라 칭하기도 한다. 이런 흑세무민의 사이비는 응당 엄히 금해야 한다. 사적으로 찬한 음사한 책등은 비천하여 쉽사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니 전부 찾아내서 엄금하고 서판도 처분해야 한다. 만약 위반한 자가 있으면 안으로는 오성의 어사, 밖으로는 총독과 순무에 넘겨라. 부주현의 관리에게 하명하여 엄격히 살펴 찾아내고 해당 부서들은 중죄로 처분하라. 단 해당 관원들을 제외한 다른 자가 고발하여, 양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불허한다.
4	凡鳴鑼擊鼓, 聚衆燒香, 男女混雜等弊, 并扶鸞書符, 招搖賣藥之輩, 及淫詞小說等書, 俱

34) 王利器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孫文杰의 박사논문 중 표 6-6을 수정보완 하였다.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p.22-85. 孫文杰, 『清代圖書市場研究』, 武漢大學圖書館學博士學位論文, 2010, pp.208-212)

	責令五城司坊官, 永行嚴禁 (康熙四十年 (1701) . (清)光緒延煦等纂『欽定台規』 ⁴⁰ 卷二十五)
	징을 올리고 북을 치며, 군중이 모여 향을 피우고, 남녀가 뒤엉키는 등의 폐단, 그리고 접신으로 부적을 쓰며, 요란하게 주목을 끌어 권력에 결탁하는 무리 및 음사소설 등의 책, 이 모든 것들을 경성의 오성순시관에게 명하여 엄히 금하게 하라.
5	<p>凡坊肆市賣一應淫詞小說, 在內交與都察院等衙門, 轉行所屬官弁嚴禁, 務搜版書, 盡行銷毀. 有仍行造作刻印者, 系官革職, 軍民杖一百, 流三千里. 市賣者杖一百, 徒三年, 買看者杖一百. 該管官弁, 不行查出, 按次數分別議處. 仍不許借端出首訛作⁴¹ (雍正二年 (1724). (清)光緒延煦等纂『欽定台規』卷二十五)</p> <p>저자의 서점에서 파는 일체의 음사소설을 도성에서는 도찰원등 아문에 넘기고, 각 소속 관리에게 엄격히 금지하라 명하라. 책과 서판을 찾아내어 전부 처분하라. 계속 간행할 경우 관리는 파직, 군인과 백성은 장 100대, 유배 3천리에 처하라. 판매자는 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하고, 구독자는 장 100대에 처하라. 해당 관원이 찾아내지 못하면, 해당부서에서 횡수에 따라 처벌하라. 여전히 무고를 윤택치 않는다.</p>
6	<p>凡坊肆市賣一應淫詞小說, 在內交八旗都統、都察院、順天府, 在外交督撫等, 轉飭所屬官, 嚴行查禁, 務將書板盡行銷毀, 有仍行造作刻印者, 系官革職, 軍民杖一百, 流三千里, 市賣者杖一百, 徒三年, 該管官弁不行查出者, 一次罰俸六個月, 二次罰俸一年, 三次降一級调用. 蓋淫詞稗說, 最爲風俗人心之害, 例禁綦嚴. 但地方官奉行不力, 致向存舊刻銷毀不盡. 甚至收買各種, 疊架盈箱, 列諸市肆, 租賃與人觀看. 若不嚴行禁絕, 不但舊板仍然刷印, 且新板接踵刊行, 實非拔本塞源之道. 應再通行直省督撫, 轉飭該地方官, 凡民間一應淫詞小說, 除造作刻印, 『定例』已嚴, 均照舊遵行外. 其有收存舊本, 限文到三月, 悉令銷毀. 如過期不行銷毀者, 照『買看例』治罪. 其有開鋪租賃者, 照『市賣例』治罪. 該管官員任其收存租賃, 明知故縱者, 照『禁止邪教不能察緝例』, 降二級调用⁴² (乾隆三年 (1738). (清)魏晉錫纂修『學政全書』卷七『書坊禁例』)</p> <p>저자의 서점에서 파는 일체의 음사소설을 도성에서는 도찰원, 팔기도통, 순천부로, 지방에서는 총독 및 순무에게 제출하라. 소속 관리에게 엄격히 조사해 금지하라 명하라. 책과 서판은 반드시 전부 처분하라. 계속 간행할 경우 관리는 파직, 군인과 백성은 장 100대, 유배 3천리에 처하라. 판매자는 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하라. 해당 관원이 찾아내지 못하면, 처음은 감봉 6월, 두 번째는 감봉 1년, 세 번째는 일계급을 강등하여라. 대저 음탕한 말이 풍속과 인심에 제일로 해를 끼치니 엄금하였다. 그러나 지방관리가 열심히 명을 수행치 않아서, 아직도 이전 판각을 없애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러 종을 구매해 선반에 쌓거나 상자에 담아 시장에 늘어놓고 대여해주고 있다. 엄격히 금령을 시행치 않는다면, 이전 판본은 여전히 인쇄되고, 새 판본은 뒤를 이어 간행될 것이므로, 진정한 발본색원이라 할 수 없다. 당연히 재차 직례지구 총독 및 순무에게 명하고, 해당 지방 관리에게 명하라. 사적인 음사소설의 간행은 『定例』가 이미 엄격하니, 이를 따를 것 외에도, 이전 판본이 있다</p>

	면, 세 달 내에 전부 처분하여라. 기한을 어기 자는 『買看例(구독조례)』에 의거 처분하라. 또한 상점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자는 『市賣例(판매조례)』에 따라 처분하라. 해당관리가 대여를 묵인하고 알고도 풀어준 자는 『禁止邪教不能察緝例(사교를 금했으나 조사하고 잡아들이지 못한 조례)』에 따라 두 계급을 강등하여라.
7	<p>凡坊肆市賣一切淫詞小說, 在內交與八旗都統、都察院、順天府, 在外交督撫等, 轉行所屬官弁嚴禁, 務搜板書, 盡行銷毀. 有仍行造作刻印者, 系官革職. 軍民杖一百, 流三千里. 市賣者杖一百, 徒三年. 該管官弁不行查出者, 交與該部按次數分別議處. 仍不准借端出首訛作⁴³⁾(乾隆五年(1740). (清)魏晉錫纂修『大清律集解』卷四十七)</p> <p>저자의 서점에서 파는 일체의 음사소설을 도성에서는 도찰원, 팔기도통, 순천부로, 지방에서는 총독 및 순무에게 제출하라. 소속 관리에게 엄격히 조사해 금지하라 명하라. 책과 서판은 반드시 뒤져서 전부 처분하라. 계속 간행할 경우 관리는 파직, 군인과 백성은 장 100대, 유배 3천리에 처하라. 판매자는 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하라. 해당 관원이 찾아내지 못하면, 해당부서에서 횡수에 따라 처벌하라. 여전히 무고를 윤택치 않는다.</p>
8	<p>『水滸傳』一書, 應飭直省督撫學政, 行令地方官, 一體嚴禁⁴⁴⁾(乾隆十九年(1754). 『學政全書』卷七『書坊禁例』)</p> <p>직예성 총독과 순무, 학정에 명하고 지방관에게 명하여 『水滸傳』을 일체 엄히 금하라.</p>
9	<p>查辦軍流以下人犯, 酌擬准減不准減條款開列于後: 軍流徒不准減等條款一百四十八條: 一、造刻淫詞小說, 及抄房捏造言語錄報各處, 罪應擬流者⁴⁵⁾(光緒十一年(1885)正月初四. 『定例匯編』⁴⁶⁾卷一百三十一『名例』)</p> <p>군역 이하의 범죄자를 조사하여, 감형의 가부 조항을 추정하여 뒤에 열거 한다: 군역, 징역형 및 유배에서 감형 불가 조항 148조: 음사소설 간행 및 유언비어를 날조 각 처에 퍼뜨리는 죄는 마땅히 유배이다.</p>
10	<p>凡造讖緯妖書妖言, 及傳用惑衆者, 皆斬監候. 被惑人不坐. 不及衆者, 流行三千里, 合依量情分生. 若(他人造傳)私有妖書, 隱藏不送官, 杖一百, 徒三年⁴⁷⁾. 妄布邪言書寫張貼, 煽惑人心, 爲首者斬. 爲从者, 斬, 監候. 若造讖緯妖言, 傳用惑人, 不及衆者, 改發回城, 給大小伯克及力能管束之回子爲奴. 至狂妄之徒, 因事造言, 捏成歌曲, 沿街唱和, 及以鄙俚褻猥之詞, 刊刻傳播者, 內外各地方官, 即時察拿, 審非妖言惑衆者, 坐以不應重罪(光緒二十七年(1901). 『大清律例增修統纂集成』⁴⁸⁾之『刑律·盜賊』的『造妖書妖言』條例⁴⁹⁾)</p> <p>대저 요서와 요언을 꾸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는 모두 참하나 추심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미혹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3인)에게 미치지 않은 경우, 삼천리 유배에 처하고, 정도에 따라 처분한다. 만약(타인이 만든) 요사스런 책을 갖고 있으며, 사용치는 않았으나 감추고 관아에 바치지 않은 자, 곤장 100대 및 징역 3년에 처한다. 망령되이 요언을 전파하고 벽보로 인심을 선동한 우두머리는 참한다. 추종자는 참 혹은 집행유예. 요망한 말을 지어 미혹 했으나 3인에 못 미치면, 위구르</p>

	회성에 보내 크고 작은 관리와 통제력이 있는 회족의 노비로 만든다. 사안을 빌미로 말과 노래를 꾸며 시정에서 노래하는 미친 무리, 비루하고 천박한 내용을 간행해 전파한 자를 내외의 관리는 서둘러 포획하라. 심의 후 요언으로 3인 이상을 현혹치 않았으면 중죄로 처벌 말라.
--	---

청대에는 빈번히 소설을 규제하는 대규모의 중앙금령을 반포하였고, 이러한 금령들은 <표1>과 같이 『청률』을 비롯한 각종 법전에 기재되는 ‘법제화’라는 특성을 띠게 되었다.

1) 규제대상인 소설에 대한 다양한 용어 명시

淫詞小說이라는 용어는 『명실록』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조선과 명의 경우 실록에 기록된 금지소설은 각 1권씩이므로 『전등신화지류』나 『설공찬전』이라는 서명을 특정하였다. 그리고 명과 조선에서 소설규제에 적용했던 『명률』은 ‘요서’라는 포괄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설규제

- 35)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23에서 재인용.
- 36) 청대의 과거와 교육에 관련된 황제의 유지 및 典章制度(법칙, 규칙 등)를 기록한 법전으로 王杰이 칙명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건륭58년(1793) 28권이 완성되었고, 가경17년(1812) 86권으로 증간되었다. 學政은 “提督學政”, “督學使者”, “學台” 등으로도 불린 청대 지방교육행정의 장관이며 欽差의 성격을 띠는 중앙관리(京官)에 속한다.
- 37)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23에서 재인용.
- 38) 科道는 명칭의 6과 급사중과 도찰원 13도 감찰어사의 총칭으로 兩衙門이라고도 한다.
- 39)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23에서 재인용.
- 40) 台規는 御史台規則의 약칭으로, 御史台는 감찰기구이며, 명·청시기에는 都察院으로 명칭변경되었다. 欽定에서 알 수 있듯이 『欽定台規』는 중국감찰법제사상 처음으로 황제의 명의로 반포된 최고권위의 감찰법전이다. 건륭8년에 도찰원에서 편찬을 시작하였으며, 총 8권 22목으로 출발 광서연간에 42권으로 늘어났다.
- 41)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2에서 재인용.
- 42)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p.41-42에서 재인용.
- 43) (清)沈之奇注, 『大清律集解』, 上海古籍出版社, 1990, p.7에서 재인용.
- 44)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5에서 재인용.
- 45)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85에서 재인용.
- 46) 명령과 成例가 늘어나 행정에 참고할 규정을 찾기 위해 청대에는 관각(江西按察司衙門刊『定例匯編』)과 방각(『定例全編』)의 定例集을 다수 간행하였다. (岸本美緒, 『關於清代前期定例集의 利用』, 『中國古代文獻研究』, 第八輯, 2014, p.375)
- 47) 張靜廬, 『中國近代出版史料(初編)』, 上雜出版社, 1953, p.311에서 재인용.
- 48) 任彭年이 도광23년(1823)의 『新增律例統纂集成』을 이어서 40권으로 편집. 동치6년 이전의 유지와 각종 공문서들을 기록하였다. 동치7년(1868) 京都龍威閣書坊에서 간행하였다.
- 49) ‘造妖書妖言’과 관련 『청실록』에는 江夏縣民曠雲章이 襄陽에서 造言을 퍼뜨린 사안에 대해 “승依造妖書妖言律、擬斬監候(‘조요서요언율’에 해당하며 참수이나 秋審까지 집행유예할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高宗純皇帝實錄』 卷之二百七十五 乾隆十一年 九月 二十九日 11번째 기사)

가 빈번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차별성을 띠고 있다. 청대 법전의 자료를 모아놓은 <표1>의 고찰을 기반으로 명·청·조선의 규제대상으로서 소설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에 따른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설이 규제대상으로서 淫詞小說이라는 용어로 『청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강희 26년이며, 그 뒤 강희 48년에 다시 등장한다.⁵⁰⁾ 강희제는 유교적 이상 국가의 건설을 위해 대도에 어긋나는 소설을 규제한 것이며, 음사로 규정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조선도 정조가 문체반정을 통해 소설을 폄훼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稗乘小說’⁵¹⁾, ‘稗官雜說’⁵²⁾, ‘稗說’⁵³⁾ 등과 같이 ‘稗’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똑같이 유교적 이상 국가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며 소설을 규제하였지만, 그 기저에 깔린 개념이 ‘淫(저급, 음란)’과 ‘稗(기록, 야사)’로 나뉜 것은 소설에 대한 각각의 인식, 즉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청의 음사소설로 돌아오면, 강희제 이후 계속해서 누차에 걸쳐 소설규제가 시행되었지만, 『청실록』에서는 더 이상 음사소설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청실록』에서 사용되지 않던 음사소설이라는 용어가 『청률』 등 청대의 법전에서는 규제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총 10회의 주요금령 중 여섯 번 사용되었다. (<표1>의 3, 4, 5, 6, 7, 9번)⁵⁴⁾ 이를 통해 음사소설이라는 규제의 대상을 구체화한 용어는 강희26년 이후 법률용어로 정착되어, 그 이전에 사용되던 포괄적 의미의 “瑣語淫詞(<표1>의 1, 2번: 자질구레하고 음란한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률부터 명률로 이어져온 ‘조요서요언’ 조항을 계승 발전시킨 10번의 경우는 ‘동일한 조목’ 및 건륭 이래 ‘律文은 거의 수정하지 않는 전통’의 영향으로 “요서”라는 용어를 원용하고 있으며 “鄙俚褻猥之詞(비루하고 천박한 내용)”라는 소설의 특성을 뭉뚱그린 개념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청대의 법전에서 소설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가장 독특한 점은

50) 『청실록』에 총 2회 사용되었다. 『聖祖仁皇帝實錄』 卷之一百二十九 康熙二十六年 二月 十六日 1번째 기사. 『聖祖仁皇帝實錄』 卷之二百三十八 康熙四十八年 六月 一日 1번째 기사.

51) 『순조실록』 11권, 순조8년 3월 26일 임술 1번째 기사.

52) 『정조실록』 24권, 정조11년 10월 10일 甲辰 1번째 기사.

53) 『숙종실록』 48권, 숙종36년 5월 21일 을유 3번째 기사(稗說이 혼용됨, 선조 31년 9월 1일 계미 2번째기사 등 총2회).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3번째 기사.

54) 이중 3번의 “共一百五十餘種”과 동치7년(1868) 정일창의 금지소설 서목 156종이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유통되었던 소설 거의 전체를 금지소설인 음사소설로 지정했음을 알 수 있다. (최용철, 「중국의 역대 금서소설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연구회, 1997, p.219) 또한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민관동은 이 수치에서 회곡 등을 제외한 금지소설은 112종이라고 주장하였다. (민관동, 「중국금서소설의 목록분석과 국내수용」, 『중국소설논총』, 제56집, 2018, pp.292-299)

『수호전』이라는 서명을 특정한 것이다. (<표1>의 8번) 이 같은 예는 건륭에서 도광 연간까지 계속 편찬된 행정법전인 『欽定吏部處分則例』에서도 발견된다.⁵⁵⁾ 이와 같이 『수호전』이라는 서명을 특정 하는 금령의 법제화를 통해 음사와 더불어 ‘不經’, 즉 반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중봉기에 대한 만주족 지배층의 경계심이 커졌음을 읽을 수 있다.⁵⁶⁾

이러한 맥락에서 『수호전』처럼 誨盜로 거론되는 조선의 『홍길동전』은 논리적으로 금지소설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및 그 어느 법전에도 규제에 관한 언급이 없어 청과 대조를 이룬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청과 달리 조선에는 민족적 모순이 없어 민중봉기라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2) 소설규제 담당부서 명시

청대 소설규제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담당부서의 지정이다.⁵⁸⁾ 이러한 담당기구들은 금령의 법제화에 따라 법조문에도 명시되었다. 위의 <표1>과 같이 최초로 담당기구가 정해지고 법전에 명시된 것은 강희2년(1663)의 “內而科道. 外而督撫(<표1>의 2번)”이며, 강희26년(1687)에 “內而科道五城御史. 外而督撫. 府州縣官(<표1>의 3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강희53년(1714)에 “在內交八旗都統、都察院、順天府. 在外交督撫等(<표1>의 5, 6, 7번)”으로 바뀌며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게 된다.

담당기구의 표현이 다르지만 <표1>의 4번과 5번도 소설규제를 담당하는 중앙기구이다. 五城司坊官(<표1>의 4번)은 경성의 東西南北中 5개 지역을 순시하는 五城御史. 경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五城兵馬司. 오성병마사 예하 10곳의 감옥 十坊的監獄을

55) 『欽定吏部處分則例』卷三十『禮文詞』: 小說淫詞『水滸傳』, 嚴查禁絕, 版與書盡行銷毀, 違禁刻印者, 革職. 買看者, 罰俸一年(음사소설 수호전을 엄히 금하고 책과 서판을 훼손하라. 이를 어기고 간행하는 자는 파직시키고, 구매해서 읽은 자는 1년 감봉에 처하라) 吏部 관리의 업무상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호전』을 특정한 것이다.

56) 청은 元의 단명을 漢化로 보고 경계하였었다. (胡海義·程國賦, 「論乾隆朝小說禁毀的種族主義傾向」, 『明清小說研究』, 總第80期, 2006, p.41) 이에 따라 청대 금지소설의 범위는 음사에서 불경으로 확대되었고, 법을 제정하여 형법으로 처벌하였다. (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 2010, p.65)

57) 『홍길동전』이 금지소설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장동석, 「시대의 금서를 읽다」4,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11, p.114)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금지소설이었다는 명료한 기록은 없다. 금지소설인 『설공찬전』처럼 비밀리에 베낀 필사본 1종만 잔본으로 전해지는 것과 달리 다양한 방각본과 활자본이 현전함은 『홍길동전』이 금지소설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김길연, 『한국의 금서』, 지식과 교양, 2018, pp.47-53)

58) “內外各地方官(표1의 10번)”은 特定한 것이 아니어서 담당기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지칭하는 것으로 <표1>의 3번 五城御史의 확장이다. 그리고 學政이 지방에서 근무하나 중앙관리이고 直省 역시 중앙의 직속지구 이므로 直省督撫學政(<표1>의 8번) 역시 중앙의 직속기구이다.⁵⁹⁾

이처럼 청대는 빈번히 시행된 소설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담당기구를 지정하였고, 이를 법조문에 명시하였다.

3) 소설책 및 서판의 훼손 명시

조선의 소설규제가 소설책(텍스트)만을 훼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명과 청은 서판도 훼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⁶⁰⁾ 조선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훼손의 대상으로 특정된 유일한 금지소설은 『설공찬전』이며, 서판에 대한 언급 없이 책만 소각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의 훼손에 대한 유일한 자료인 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선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조선은 명·청과 달리 18세기 전반까지 소설의 간행과 유통의 핵심인 서점이 없었고,⁶¹⁾ 19세기 본격적인 방각본 출판 이전 대부분의 소설이 필사로 전파됐었다. 그래서 명·청의 소설금령과 달리 서판의 훼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선과 같이 『명실록』에도 금지소설에 관한 언급이 1회에 그치지만, 『剪燈新話(之類)』의 훼손에 있어서는 책의 소각과 함께 간행과 판매자의 처벌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대에는 소설의 출판과 유통을 담당하는 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나 명과 달리 청은 소설규제가 빈번했고, 이러한 금령이 위 표1)과 같이 법전에 삽입되기도 했다. ‘서판’과 관련하여 이를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판 훼손을 언급 <표1>의 3번(毀其刻板), 5번(務搜版書, 盡行銷毀), 6번(務將書板, 盡行銷毀), 7번(務搜板書, 盡行銷毀).
- ② 서점과 간행을 언급 <표1>의 1번(坊間書賈, 止許刊行), 3, 5, 6, 7번(凡坊肆市賣, 간행은 ①의 예문과 같음).
- ③ 소설 간행만을 언급 <표1>의 9번(造刻淫詞小說).
- ④ 소설 추정 간행만을 언급 <표1>의 2번(私刻瑣語淫詞), 10번(以鄙俚褻猥之詞, 刊

59) 중앙기구 이외에 청말 지방관청도 惜字局(江蘇)과 仙林寺(浙江)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담니여, 『원명청시기 금쇄소설·회곡연구』,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년, p.47)

60) 예를 들어, 명 순정15년 좌무제의 상소를 받아들여 ‘『수호전』과 서판의 소각’을 윤허하는 황제의 유지를 반포하였다. (李維東, 『談《水滸傳》的禁毀與李青山起義』, 『水滸爭鳴』, 第十七輯, 2018, pp.278)

61) 1844년 즈음 서점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사, 1999, pp.256-262)

刻傳播者).

⑤ 소설의 대여를 언급 <표1>의 6번(列諸市肆, 租賃與人觀看와 其有開鋪租賃者)

이상의 세분을 통해 서판과 관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청대에는 서점이 있어 소설을 간행 및 대여도 하고 있었으므로 소설을 규제할 때 서판도 함께 훼손했었다. 서판까지 훼손하라는 것을 통해 청대 서점에서 유통한 소설 생산의 주요경로는 필사가 아닌 서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설규제를 위해 서판까지 없애라는 금령을 반포한 것이며 이를 법전에 명시한 것이다.

4) 규제시행 관련 애민원칙 문구 명시

『청률』이 소설규제의 집행과 대상, 형량에 있어서 『명률』보다 관대해 졌음은 『명률』과 『청률』의 같은 조목인 ‘조요서요언’의 비교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와는 별개로 청대의 법전에는 같은 맥락에서 관리들에게 법집행시 관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률』에 반영된 관용의 정신은 연이어 반포된 중앙정부의 금령과 이를 법제화한 법전의 愛民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령에 언급된 소란금지가 바로 그것이며, 소설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강희제에서 청말 광서제까지 계속해서 법조문에 명시되고 있음을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각각의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다소 상이하지만 같은 맥락이며, <표1>의 3, 5, 7, 10번이 이에 해당한다(강희26년(1687) ‘但除該管官員外,亦不許旁人訐告,以致奸徒擾害良民(3번)’. 옹정2년(1724) ‘仍不許借端出首訛作(5번)’. 건륭5년(1740) ‘仍不准借端出首訛作(7번)’. 광서27년(1901) ‘審非妖言惑衆者,坐以不應重罪(10번)’⁶²⁾

청대의 각종 법전에 명시된 위와 같은 문구는 청대의 유가적 통치이념으로서의 관용과 애민의 표현이다. 명과 조선의 경우, 『실록』에 기록된 소설의 수색과 훼손에 관한 기사는 각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청과 같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명률』의 법제정 원칙이 관용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청과 달리 명과 조선의 법전에서는 소설규제와 관련하여 관용과 애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대의 소설규제 관련 법조문의 표층에는 관용과 애민으로 채색되어있다. 그러나 청대는 만주족의 한족지배라는 민족적 갈등으로 인해 강력한 문자옥 등 잔인한 문화정책을 시행했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

62) 표1)의 10번의 경우 직접적인 소란금지는 아니지만, 관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란금지로 분류하였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법조문의 표층이 아닌 그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소설에 대한 통치계급의 이중성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적 의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먼저 금령 중의 소란금지 문구는 자신들의 비공식적 취미생활을 위해 소설의 진정한 엄금을 바라지 않는 통치자들의 이중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설규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수호전』과 『금병매』 등은 민간에서만 금지소설이었을 뿐, 만주족 통치계급에서는 비공식적인 오락용 서적이었다. 예를 들어 『수호전』의 만주어 번역을 금하는 『청실록』의 기록이 이를 반증한다.⁶³⁾ 그리고 “소설규제가 제일 심했던 건륭제 때 궁에 소설이 가장 많았으며, 『金瓶梅』라는 책에 건륭제가 열람했다는 御覽印匠이 찍혀서 현전하고 있음”⁶⁴⁾이 이를 입증한다.

다음은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적 의지이다. 청대의 지배계급은 소설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설이 전통시문과 성격 및 독자층이 달라 번역시문처럼 엄혹하게 금지할 필요를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히 백성들을 자극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⁶⁵⁾ 따라서 청대는 각종 법전의 법조문에 관용과 애민이라는 표피를 씌워 이를 위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금령과는 달리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한 청말 지방정부의 금령에는 이러한 관용과 애민의 정신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변화한 소설의 영향력과 몰락에 직면한 청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금령 중의 소란금지 문구는 애민정신으로 위장된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적 의지의 다른 표현이다.⁶⁶⁾ 이처럼 청대 법조문에 기술된 소란금지 문구는 관용과 애민의 정신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지배계급의 취미생활과 강력하고 잔인한 문화정책에 대한 위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5) 당률과 명률의 계승 및 소설규제법의 제정

청대에는 빈번히 대규모의 중앙금령을 반포하며 소설을 규제하였다. 이러한 금령

63) 『高宗純皇帝實錄』卷之四百四十三 乾隆十八年 七月 二十九日 2번째 기사.

64) 阿英, 『關於清代的查禁小說』(歐陽健, 『古代小說禁書漫畫』, 遼寧教育出版社, 1992, p.63에서 재인용)

65) 이와 관련하여 석창유는 번역시와 달리 소설은 통속의 속성을 띠므로, 소설종사자 및 독자들의 생계를 위해 관원에게 소란금지를 명했다는 애민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9卷, 2010, p.65)

66) 동치 7년(1868) 江蘇巡撫 丁日昌이 지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설금지령을 반포하며, 부하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금서 업무를 인사고과에 반영(本院院將以辦理此事之認真與否, 辨守令之優細焉)하였는데, 시대역행적으로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歐陽健, 『古代小說禁書漫畫』, 遼寧教育出版社, 1992, p.33)

들이 <표1>과 같이 『청률』을 비롯한 각종 법전에 기재되는 법제화에는 『당률』과 『명률』의 계승발전이라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었다. <표1>의 법조문 중 10번은 ‘刑律·盜賊 造妖書妖言’이라는 조목을 사용하며 『당률』 및 『명률』과의 계승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⁶⁷⁾ 그리고 <표1>의 1, 2, 3, 4, 8, 9번의 경우는, “淫詞(1번)”, “有乖風化者(2번)”, “邪教惑民(3번)”, “扶鸞書符(4번)”, “水滸傳(8번)”, “捏造言語(9번)” 등의 문구를 통해서 『명률』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 조항의 계승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1>의 5, 6, 7번은 중국사상 최초의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의 제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강희53년 소설의 판매자, 간행자 및 단속을 소홀히 한 관리의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定例’가 반포되었다. 5번은 ‘정례’에 ‘買看者杖一百(구독자는 장 100대)’와 “仍不許借端出首訛作(여전히 이를 빌미로 소란 피우는 것을 금한다)”의 문구를, 6번은 ‘其有開鋪租賃者, 照『市賣例』治罪(점포를 열어 대여해 주는 자는 ‘시장에서 판매한 조례’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고)’와 ‘照『禁止邪教不能察緝例』, 降二級調用(사교를 금지하였는데 이를 막지 못한 조례’에 의거해 2계급 강등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고 몇 군데 글자를 수정을 한 것이다. 5, 6번과 같이 수정과 보완을 거친 ‘정례’를 건륭제는 7번과 같이 다듬어 『대청률집해』의 조례로 삼입시켰다. 이로써 중국사상 최초로 기존의 행정법 차원(<표1>의 1, 2, 3, 4번)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소설규제법이 탄생하였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법적근거로 활용되었다.⁶⁸⁾

5. 나가는 말

조선·명·청은 유교라는 통치이념과 명률이라는 율법체제로 작동한 전형적인 유교주의 봉건국가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이상실현에 역행하는 소설은 매우 엄격히 규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사는 명·청·조선을 소설의 시대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문화와 정서는 서로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전을 중심으로 하고 실록을 참고하는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우선 공통분모인 『명률』의 계승과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금서 시행의 근거가

67) 순치4년(1647)에 반포된 『大清律集解附例』의 “造妖書妖言” 조례를 바탕으로 ‘若造讖緯妖言’ ‘因事造言, 捏成歌曲’ ‘以鄙俚褻猥之詞, 刊刻傳播者’ 등의 처벌규정을 추가하여 규제강도를 강화하였다.

68) 胡海義·程國賦, 「論乾隆朝小說禁毀的種族主義傾向」, 『明清小說研究』, 總第80期, 2006, p.43.

된 중국 최초의 법령인 협서율과 그 상징성을 계승한 『당률』의 ‘조요서요언’ 조항은 한 글자의 변형도 없이 『송형통』 ‘조요서요언’ 조항으로 이어졌고, 이를 다시 『명률』과 『청률』이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 조항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고 문화적 정서적 차원에서 ‘소증화’를 표방한 조선은 청의 압력 때문에 비록 청의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소설규제 등 형법 적용의 근거로 『청률』이 아닌 『명률』을 견지하였다.

다음으로 청대 소설규제의 특징인 법제화를 살펴보았다. 명과 조선의 단발성 규제와 달리 청대는 빈번히, 그리고 구체적 법제화를 통해 소설을 규제하였다. 소설규제 전담부서를 특정하였고, 서관의 훼손 및 소설대여의 금지나 구체적 처벌대상으로서 소설의 간행자, 독자, 그리고 해당관원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형량도 명시하는 등 엄밀하면서도 명실상부한 소설규제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관용과 애민의 표현을 소설규제의 중앙금령에 적용하였다. 이는 다시 『청률』을 비롯한 각종 법전에 삽입되었고, 청대 소설규제의 ‘禁而不止’ 현상을 야기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청과는 달리 실록에 단 1권씩의 금지소설만 언급된 명과 조선의 경우는 결본과 낙질만 남은 정도로 엄격히 통제되어 대조를 이룬다.⁶⁹⁾

이상의 고찰을 통해 서론에서 제기한 2가지 추론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과 명은 소설규제의 주요한 인적 대상이 관료 내지는 예비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에서 단속이 진행되어 단 1권씩의 금지소설만이 실록에 언급되었다. 그러나 청은 소설규제의 인적 대상이 지배계층인 만주족과 피지배계층인 한족이었고, 이에 따른 만주족 풍습과 세도인심의 보호를 위해 『청실록』과 법전에 음사소설이라는 용어로 약 150종에 달하는 당시 소설의 대부분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표1>의 3번 참조) 그리고 민중봉기를 우려해 『수호전』이라는 서명을 법전에 특정하였는데, 이는 명과 달리 반청이라는 민족모순이 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⁷⁰⁾ 한편 조선에서는 『수호전』은 물론 『홍길동전』도 금지소설이 아니었다. 이처럼 공통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선·명·청에서 소설이 매우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둘째, 명대소설의 주류인 장회체가 아니라 전기인 『전등신화』를 최초의 금지소설

69) 『전등신화』는 결본상태로 청에 전해졌고, 1917년 일본에 전해졌던 판본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됐다. (최용철, 「명청시대의 금서소설과 문인의 이중적 소설관」, 『중국어문논총』 제31집, 2006, p.276-277). 한문본 『설공찬전』은 실전됐고, 13쪽짜리 낙질로 한글본 『설공찬이』만 1997년 일기의 뒷면에서 발견됐다. 이를 통해 『수호전』 및 『홍길동전』등 현전하는 소설들과는 대조적으로 강력히 규제됐었음을 알 수 있다.

70) 아이러니하게 『수호전』과 달리 청대를 통틀어 『삼국연의』는 금서로 지정된 적이 없다. 『삼국연의』는 옹정연간의 郎坤사건과 반청이란 맥락에서 보면 위한정통론이어서 청대의 금지소설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금지소설은 아니었다. (王彬, 『禁書·文字獄』, 中國工人出版社, 1992, p.105, p.256)

로 지정한 것은 관리계층인 사대부를 인적대상으로 한 규제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명초에는 서민에 대한 소설의 영향력에 관심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에서 『설공찬전』의 금지소설 지정 역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였고, 그 훼손에 있어 『전등신화』처럼 “印賣(인쇄와 판매)”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통해 당시 조선에는 서점이 없었고, 주로 필사의 형태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은 명과 달리 백화소설에 해당하는 한글소설에 대한 규제 역시 없었다. 청의 경우 ‘소설의 만주어 번역을 규제하는 금령’⁷¹⁾이 있었으나, 명은 물론이고 조선에서도 소설의 번역을 규제하지 않았다.⁷²⁾ 이밖에도 조선과 청에서는 명에서 규제했던 『전등신화』와 『전등여화』가 금지소설이 아니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명률』의 ‘조요서요언’과 ‘금지사무사술’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穢’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는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입증 이외에 ‘上有政策下有對策’이라는 말처럼 한국의 고소설과 중국의 고전소설은 통치이념에 타협하거나 저항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명대 후기 이후 대부분의 소설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봉건예교의 선양과 세도인심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창작목적에 굳이 밝히고 있다. 이는 통치이념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소설이 아예 통치이념의 교화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었다.⁷³⁾

이 같은 타협 외에 저항도 있었다. 명·청의 경우는 ‘습刊’⁷⁴⁾ 혹은 ‘異名’⁷⁵⁾ 형태의 소설판본이 다수 존재했다. 이는 출판업자들의 상술이기도 하지만 소설을 규제한 통치이념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은 19세기 중후반에 딱지본 대여소설이 나오기 전 상업적 목적의 소설 출판과 유통이 없었고 규제도 없었으므로,

71) 『太宗文皇帝實錄』卷之二十三 天聰九年 五月 二十日 1번째기사 1635년. 『高宗純皇帝實錄』卷之四百四十三 乾隆十八年 七月 二十九日 2번째 기사.

72) 국내 유입된 명·청대 금지소설은 약 66종으로 이중 5종이 출판됐고 약 20종이 번역됐으며 음사소설이 주를 이룬다. 낙선재본처럼 궁중에서도 공공연히 이들 금지소설을 번역하였다. (민관동, 「중국금서소설의 목록분석과 국내수용」, 『중국소설논총』, 제56집, 2018, pp.299-305)

73) 희곡인 『五倫全備記』를 한글로 번안한 『오륜전전』(1531)은 최초의 ‘중국문학 번안소설’이며, 지방관들이 이를 백성교화에 이용했었다.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제8권, 애산학회, 1989, p.129)

74) 『수호전』과 『삼국연의』를 합간 한 『漢宋奇書』는 『수호전』의 금서를 피하기 위한 개명으로 평가된다. (김혜진, 『명청대 금서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61)

75) 애정류 소설의 경우 음란성으로 규제를 받으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개명하여 출판을 했었다. 『金瓶梅』의 경우 『繡像八才子詞話』·『四大奇書第四種』·『多妻鑒』·『校正加批多妻鑒全集』·『新携繪圖第一奇書鍾情傳』등으로 개명 후 출간하였다.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서명과 이명소설연구」, 『중어중문학』, 제73집, 2018, pp.102-107)

규제를 피하기 위한 합간과 이명출판이 없었다.⁷⁶⁾ 이처럼 조선·명·청의 소설규제에 대한 타협과 저항의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소설규제를 고찰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이 ‘왜곡인식’ 되었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소설사 내지는 문화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76) 조선의 경우 한문소설 『원생몽유록』(1568년)처럼 『원자허전』이라는 이명이 있으며 작가인 임제의 「화사」와 합철된 필사본 및 印刊本으로 임제의 『백호문집』 등에 수록되어 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명·청과 달리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사, 1999, pp.256-262.
- 강태권, 「중국 금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7호, 중국어문학연구회, 1995, pp.1-3.
- 김길연, 『한국의 금서』, 지식과 교양, 2018, pp.47-53.
- 김혜진, 『명청금서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 p.61.
- 담니여, 「원명청시기 금쇄소설·회곡연구」,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2009, p.47.
- 민관동, 「중국금서소설의 목록분석과 국내수용」, 『중국소설논총』, 제56집, 2018, pp.284-305.
- , 「중국고전설의 서명과 이명소설연구」, 『중어중문학』, 제73집, 2018, pp.102-107.
-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제8권, 애산학회, 1989, p.129.
- 장동석, 「시대의 금서를 읽다」4,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11, p.114.
- 최용철, 「중국 금서소설의 정리와 연구현황」, 『중국소설연구회보』, 제25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6, p.22.
- , 「중국의 역대 금서소설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연구회, 1997, pp.202-203, p.217, p.219.
- , 「명청시대의 금서소설과 문인의 이중적 소설관」, 『중국어문논총』, 제31집, 2006, pp.276-277.
- 岸本美緒, 「關於清代前期定例集の利用」, 『中國古代文獻研究』, 第8輯, 2014, p.375.
- (清)沈之奇注, 『大清律集解』, 上海古籍出版社, 1990, p.7.
- 陳衛星, 「明清時期『水滸傳』禁毀情況考論」, 『第四屆中國古籍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 pp.14-15.
- 崔蘊華, 『從清代禁毀小說看法律對文學的規制』, 中國政法大學法學理論碩士論文, 2013, p.2.
- 胡海義·程國賦, 「論乾隆朝小說禁毀的種族主義傾向」, 『明清小說研究』, 第80期, 2006, p.41, p.43.
- 李維東, 「談『水滸傳』的禁毀與李青山起義」, 『水滸爭鳴』, 第17輯, 長江文藝, 2018, p.278.
- 歐陽健, 『古代小說禁書漫畫』, 遼寧教育出版社, 1992, pp.7-14, p.33, p.63.
- 石昌渝, 「清代小說禁毀述略」,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9卷第1期, 2010, p.65.
- 孫家紅, 「大清律例百年研究綜述」, 『法律文獻信息與研究』, 政法大學圖書館, 2008, pp.1-3.
- 孫文杰, 『清代圖書市場研究』, 武漢大學圖書館學博士學位論文, 2010, pp.208-212.
- 王 彬, 『禁書·文字獄』, 中國工人出版社, 1992, p.105, p.256.
- 王利器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pp.22-85.
- 岳純之, 「論『唐律釋文』及其文獻價值」, 『蘭州學刊』, 南開大學法學院, 2014, p.1.
- 張靜廬, 『中國近代出版史料(初編)』, 上雜出版社, 1953, p.311.
- <http://db.history.go.kr/> [2019.11.19]
- <http://db.history.go.kr/law/> [2020.01.2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實錄, 法典, 規制小説, 朝鮮, 明, 清				
	영문	Annals of the Dynasty, Code of Laws, Novel Ban, Chosun Dynasty, Ming Dynasty, Qing Dynasty				
<div><div><div><div><div><div><h1>The Study on the Legal Basis of the Novel Regulation of Chosun, Ming and Qing Dynasty : Focus on the ‘Law of Ming’</h1><div>Lee, Ji-Han</div></div></div><div><div><div><div><div><div><p>As a feudal state of Confucianism, The Chosun, Ming, and Qing dynasty shared the terms of ‘a vulgar book Vulgar words(造祿書祿言)’and ‘magic prohibition(禁止師巫邪術)’ clauses and as legal grounds for rejecting the novel. However, despite these common denominators, these three Dynasties implemented different forms of novel regulation because of the different ethnicities.</p><p>Starting from this problem, the study adopted a comparative and literary methodology called cultural anthropology methodology and cross-comparison.</p><p>In this study, I analyzed as an objective data, Chosun, Myeong and Qing’s law and referenced ‘silok(實錄)’. First, we looked at the succession relationship between ‘Law of Xieshu(挾書)’, ‘Law of Ming(明律)’ and ‘Law of Qing(清律)’, which were legal sources that prohibited novels. Next, we looked at whether ‘a vulgar book Vulgar words’ clause in the ‘Law of Tang(唐律)’ was passed down to the ‘a vulgar book Vulgar words’ and ‘magic prohibition’ clauses in the ‘Law of Ming’ and ‘Law of Qing’, and how it was accepted into Chosun Dynasty. Finall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ization’ of the Qing dynasty,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law of fiction.</p><p>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reasoning that all novels in the three dynasties of ‘Chosun’, ‘Ming’ and ‘Qing’ would have been uniformly forbidden was wrong. Next, the three dynasties shared confucian governance ideologies, but cultural and emotional differences allowed them to regulate novels in different ways. It also confirmed that the law and silok can be used as important sources in the study of ‘pollution’ and ‘resistance’ of novels that emerged by regulating novels.</p></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지한 / 李知翰 / Lee, Ji-Han				
	소 속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Em@il	hanige@changwon.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28	게재확정일	2020.12.17